



30일 심리를 마친 배리 피셔 변호사가 징용피해자 정재원씨의 소송에 대한 판사의 결정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태호 변호사, 피셔 변호사, 정재원씨, 신혜원 변호사. <전홍철 기자>

# 일제징용 정재원씨 소송 내달 중순 기각여부 결정

## 어제 LA민사지법 심리

정재원씨 등 한인 일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기업 다이헤이요(구 오노다) 시멘트회사를 상대로 99년에 제기한 집단 피해보상 소송의 기각여부

를 결정하는 심리가 30일 LA민사지법에서 열렸다. 이날 심리에서 판사는 내달 중순 이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LA민사지법 322호 법정(판사 피터 리치먼)에서 진행된 심리에서 원고측을 대리한 배리 피셔, 신혜원, 한태호 변호사 등 18명의 변호인단은 피고측 변호사들과 열띤 공방을 벌였다.

다이헤이요 페인트사측 변호인단은 ▶1951년 미·일 강화조약에 따라 전후 피해배상문제가 종결됐고 ▶65년 한·일 기본협정에 따라 개인 청구

권이 소멸됐으며 ▶헤이든법은 유대인 학살 피해자 소송을 위해 만들어진 법으로 일제징용 피해자 소송까지 확장시킬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케이스의 기각을 요청했다. 피고측은 또 이번 소송이 진행될 경우 미국과 일본의 정치·외교관계가 자칫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원고측 변호사들은 ▶강화조약은 일본과 미국정부에 국한된 것이고 ▶정씨 케이스는 개인에게 미지급된 임금을 일본 사기업에 청구하는 것으로 국가차원의 외교보호권과는 구분되며 ▶이번 소송을 정치적인 문제와 연관시키는 것은 무리라고 반박했다.

양측의 입장을 청취한 피터 리치먼 담당 판사는 “오는 9월17-24일 사이에 심의결과를 서면으로 발송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연화 기자

## 일본범죄 고발 웹사이트 개설

교과서 왜곡을 비롯해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범죄행위를 고발하기 위한 웹사이트(www.warcrimes-japan.com)가 개설됐다.

지난 27일부터 가동된 웹사이트는 2차대전 피해배상청구 한인연합회

(회장, 주영봉, 이하 KAWWA)와 민족학교(이사장 최진환), 재미 일본군 위안부, 징용 정의 회복 위원회(위원장 정연진, 이하 CHJWWC) 등 4개 단체가 6개월 전부터 준비해 온 것.

장연화 기자

<cyha@joongangusa.com>